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새해      제목 :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17절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5:14-17)

새해가 되었다.

새롭게 다짐하자.

올해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육신은 나이를 먹어가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다.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후4:16)

마음만은 언제나 청춘인 것이다.

그러나 몸과 세포는 그렇지 않다. 나의 이 에너지를 청년들에게 쏟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인생이 오랜 것 같지만, 한번 실수로 몇십년은 훌쩍 떠나간다. 그것이 인생이다.(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청년시절이 장년을 결정하지 않는가?)

우리의 인생 목표란, 내가 과연 몇 명의 청년들에게 그 인생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는가가 될 것이다.

내가 이 시대의 갈등에 휘말려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차라리 후배들에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것이 내가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저렇게 세속적일까,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렇게 생각이 짧을까, 왜 저렇게 짝 막혔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나이든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나이가 육신을 좀먹어 들어가듯이, 우리네 세상살이가 우리의 꿈 많은 삶을 좀먹고 있다. 나의 선배가 나를 위해 터를 닦아놓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세상살이가 우리의 꿈을 좀먹게 되어 있다.

우리네 부모들이 자신들의 청춘과 삶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 우리의 삶도 초라할 뿐이다.

소년들은 청년을 꿈꾸며 살고, 청년들은 장년을 꿈꾸며 산다. 그러나 장년들은 소년들을 위해서 살고 노년들은 청년을 위해서 산다.

소년들은 알개미요, 청년들은 병정개미요, 장년들은 일개미요, 노년들은 꿀단지개미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진화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내가 말하는 진화는 생물학적인 진화가 아니라, 역사적 진보, 사회적 진화를 말한다)

다.)

아직도 인류는 소년과 청년과 장년과 노년이 조화를 이루고 살지는 못한다.(우리 사회가 더욱 그렇다.) 여전히 민족이 민족을, 부수와 진보가, 옛것과 새것이, 동과서가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한다.

어떻게 보면 뒷걸음으로 전진하거나, 물구나무서기로 전진하고 있거나, 기어가면서 전진하는 꼴이다.

십지어는 여전히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명퇴를 앞둔 장년도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까로 고민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아닌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런 뒤죽박죽인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그들의 공통 근본문제인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랑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Key Word가 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 예수를 위하여 살라.
-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다.
- 예수님이 남을 위해 살았듯이, 나도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 모든 인생은 남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
-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은 허무하다.(드라마 서영이 -시엄마)
-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모든 삶은 허무하

다.

당회;임직회

-예결산

-위임식 연장

<찬양예배>

주제: 리더훈련    제목: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말씀:  
누가복음9장46-48절

46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47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눅9:46-48)

-사람이라면 모두가 소중하다.

-흉악범도 인간이다? 그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사형제도가 인권유린은 아니다.(잔인한 처형이 인권유린일 뿐이다.)

-감옥이 인권유린일 수 있다. 도피성이 차라리 인도적이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건 사고와 질병까지도 통치수단에 속한다.

-거짓말 하는 사람의 인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권을 유린하는 격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심지어 흉악범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대우는 받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식해도, 그가 병들었어도, 그가 장애를 가졌어도, 그가 이방인이어도, 그가 서자여도 그가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라도 그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않된다.

-다만, 그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규칙, 제도, 법률, 도덕등을 만들어서 대항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규칙들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한다.

-일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법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법이 있을 수

없으나, 한 사람이라도 그 인격이 손상된다면 법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의 상태로 그를 판단하지 말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지, 그의 인격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자.

-나에게 어린이는 누구인가? 나에게 약자는 누구인가?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희생하겠습니다.